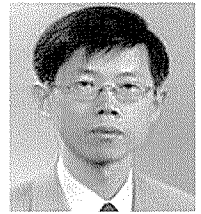


정부의 IT 지원정책



글 이진영 정보통신부 기술정책팀 연구기획담당 jylee@mic.go.kr

정부는 2006년 1월 정보통신 R&D 사업을 확정하고 IT839 전략의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7,076억원, 인력양성 부문에 1,145억원, 표준화에 335억원, 연구기반조성에 1,078억원 등 전년대비 10.1% 증가한 총 9,6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TDX 전전 자교환기 개발, 1990년대 CDMA 신화창조에 이어 2000년대의 초고속 인터넷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IT혁명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통신인프라와 정보화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T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수요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성장한 IT산업이 다시 통신인프라의 고도화와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 데에 힘입은 것이다.

정부의 IT 투자계획

정부는 2004년부터 서비스-인프라(망)-제조업(기기·S/W)으로 구성된 IT산업 전 분야가 선순환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IT839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IT839 전략 추진으로 WiBro, DMB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핵심기술이 조기 확보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30Mbps급 휴대인터넷 시스템(WiBro)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해 11월에 부산 APEC에서 성공적으로 시연을 마쳤다. 오는 4월이면 세계 최초의 상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004년 지상파 DMB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작년에는 교통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서비스 로봇 7종을 개발하고 일반 가정과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방형 텔레매틱스 기술, 입는 컴퓨터 시제품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1월 정보통신 R&D 사업을 확정하고 IT839 전략의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7,076억원, 인력양성 부문에 1,145억원, 표준화에 335억원, 연구기반조성에 1,078억원 등 전년대비 10.1% 증가한 총 9,6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IT839 전략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해 WiBro, DMB 등 그동안의 핵심기술 개발성과가 시장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지향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방 등 타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T부품·소재 연구개발 강화, IT-SoC 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통해 IT시스템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타성장동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성인식, 임베디드 솔루션, 디지털콘텐츠 등의 핵심 S/W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S/W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로봇, 텔레매



틱스를 위한 대화형 대용량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수준의 임베디드 OS(운영체제)를 로봇, 텔레매틱스 시범 사업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주연급 디지털 액터와 차세대 온라인게임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다.

IT산업 체제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와 융합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 IT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IT융합 부품·소재, 선도부품(MEMS 복합센서, 실리콘 포토닉스 등) 등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한다. 또한, 단기 시장수요(time to market) 부품, IT 신성장동력 연계부품 등 중·단기 부품·소재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융합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IT-NT-BT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오감 정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u-실감통신용 원천기술과 실시간 건강 및 환경, 재난관리가 가능한 u-디지털헬스 시스템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력양성 부문은 인력의 질적 개선과 수급 불일치 해소에 초점을 두어 추진한다.

국내 대학의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150여 개 대학에 학과당 최대 3억원 수준으로 교원확충, 교과과정 개편, 실습환경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IT 인력양성 정책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IT연구센터는 신규 4~5개를 포함하여 총 50개 내외를 육성하고, IT-SoC 설계 핵심인력 양성, 해외 우수 IT 유학생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장학금도 지원한다.

또한 IT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직종별 보직경로와 직무수준 등 직무능력표준(skill standard)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외국 유명대학의 첨단 기술 교육과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대학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화 부분에는 국제 표준화에 성공한 WiBro, 지상파 DMB에 이어 IT839 전략의 가속화에 따라 타 IT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중점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표준안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 국가간 전략적 제휴 강화 등 국

제표준화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기반 조성에는 u-IT클러스터, IT특화연구소 설립 등 연구환경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RFID/USN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u-IT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주력산업의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 IT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IT산업·기업군별 현황분석과 DB시스템 구축을 통해 IT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T839 전략은 통신·방송, 유·무선 간의 융합, 새로운 개념의 컨버전스 제품의 등장 등 급변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5~10년 후를 대비하여 Cash-cow의 다변화와 IT산업의 선순환 구조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서 출발하였다.

산·학·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IT839전략은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과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IT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USers**

〈표〉 2006년도 정보통신 R&D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

사업분야	연구비	2005년(A)	2006년(B)	증감 (B-A)	
				금액	비율 (%)
■ 기술개발		6,487	7,076	589	9.1
- 출연사업		4,537	5,276	739	16.3
· 선도기반		4,277	5,016	739	17.3
· 산업기술		170	160	△ 10	△ 5.9
· 우수신기술		90	100	10	11.1
· 융자사업		1,950	1,800	△ 150	△ 7.7
■ 인력양성 (출연)		1,078	1,145	67	6.2
■ 표준화 (출연)		302	335	33	10.9
■ 기반조성 (출연)		887	1,078	191	21.5
합 계		8,754	9,634	880	10.1